

2022

03

통권 463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는 지난 2월 24일 8층 대강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를 열어 202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신임 이사 선출 및 감사 유임을 의결하였다. (관련 내용 34면)



동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법의 생활화 운동과 법교육의 일환으로 상담소에서 다양한 봉사 및 실습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 내용 35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유리병에 작약꽃〉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❶ | 20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상담 통계
- 21 • 특집 ❷ | 2021 소송구조 분석 파산 면책
- 29 • 가정폭력상담실
- 30 • 어떻게 할까요
- 32 • 실습소감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좋은 책
아몬드
- 37 • 소송구조

* 원고 넘쳐 기획연재는 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950년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서구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혼란의 구한말에 이어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동족상잔인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전망이 당연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역사적, 시대적 배경은 물론 엄혹하기 그지없는 지정학적 위치, 무엇 하나 든든한 토대 없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사에서 우리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날 국민총생산 세계 10위에 이르는 경제적 업적을 이룩한 나라는 없고, 민주주의 또한 그러합니다. 국민에게 충구를 돌린 위정자도 있었고, 어렵게 얻어낸 직선제 대통령들이 모두 그 가치에 합당한 역할을 다해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취해낸 오늘의 역사는 결코 폄훼 되어질 수 없습니다. 누가 어느 위대한 인물이 시혜처럼 던져준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낸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금 또다시 코로나19, 오미크론 팬데믹의 상황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고 앞으로 5년간 또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쓰는 시간은 아직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가정상담〉을 받아보실 즈음에는 새 대통령의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당선자의 윤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러저러한 정책적 기대를 펼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 점을 들추어 보면 과거 냉전시대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국제적 갈등이 있고,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외교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분단국가인 우리의 처지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지역과 세대, 성별 갈등으로 얼룩진 상처를 슬기롭게 봉합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영업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을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부동산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모든 과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족과 가족정책에 무엇보다 시대적 해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근본 과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는 일이 가족과 가족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절벽 앞에 선 저출산 문제는 산업구조, 연금 등과 연관된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사회의 존속을 가늠하게 하는 절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절실한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지도자라면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문제와 더불어 중장기의 과제를 제대로 읽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혼의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문제 등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돌봄과 관련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어린이집 등원 차량이 데이케어 센터의 차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줄어들고 돌봄의 대상이 된 고령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확실한 방증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난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이 평화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이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지금입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내어놓는 정책 특히 가족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더 구체적으로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봄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 통계

이혼상담 건수 2020년 4,239건에서 2021년 4,616건으로 증가 초담 2,255건, 재담 2,361건, 재방문 건수가 더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성격차이, 경제문제 더욱 심각해져 갈등 폭발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65,639건을 상담하였다.

65,639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57,672건, 화해조정 6,236건, 소장 등 서류작성 668건, 소송구조 1,063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19,023건, 전화상담 45,373건, 인터넷상담 1,198건, 서신상담 2건, 지상상담 12건, 순회상담 31건이었다.

면접상담은 총 19,023건이었다. 사건내용은 크게 가사·민사·형사로 분류하는데, 가사사건이 18,087건으로 면접상담의 95.1%를 차지하였으며, 민사사건이 837건(4.4%), 형사사건이 99건(0.5%)이었다.

이혼상담 분석

총 4,616건,
여성내담자 3,475명(75.3%)
남성내담자 1,141명(24.7%)

상담소에서는 총 4,616건의 이혼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중 여성내담자는 3,475명이었고, 남성내담자는 1,141명이었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은 평생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성격이 과격해서 나는 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지냈다. 젊어서는 그래도 남편 비위를 맞추고 살았지만 지금은 내 몸도 가누기 힘들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 남편은 마치 나를 하인 부리듯 부리며 모든 수발을 들게 한다. 나도 힘이 있다면 간병을 하겠는데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옛그제도 남편은 오줌통을 내게 집어 던졌다. 애들도 남편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 그냥 눈치만 볼 뿐이다.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받아 단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젊어서 중등으로 파견 나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 돈을 꽤 모았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자 아내가 포악을 부리며 나를 괴롭힌다. 합의금으로 받은 돈도 모두 아내가 틀어쥐고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이들도 모두 아내 편이고 서로 착당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건달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한다. 다 내려 놓고 이혼 후 좋은 시설에 입소해 편히 지내고 싶다.

이혼상담 건수 2020년 4,239건에서
2021년 4,616건으로 증가

초담 2,255건, 재담 2,361건, 재방문 건수가 더 많아

여성은 40대(26.8%), 남성은 60대 이상(47.7%)이
가장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성격차이, 경제문제 더욱 심각해져
갈등 폭발

결혼 초기 문제 상황 변하지 않아 나이 들어 다시 찾아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시 해결해야 할 문제 많고 복잡

전체 여성 이혼상담 사유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2위 기타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순)

3위 남편의 가출

전체 남성 이혼상담 사유

1위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순)

2위 아내의 가출

3위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여성은 '폭행당했다',
남성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나갔다'
가장 많이 호소해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 비율 급격히 증가

60대 이상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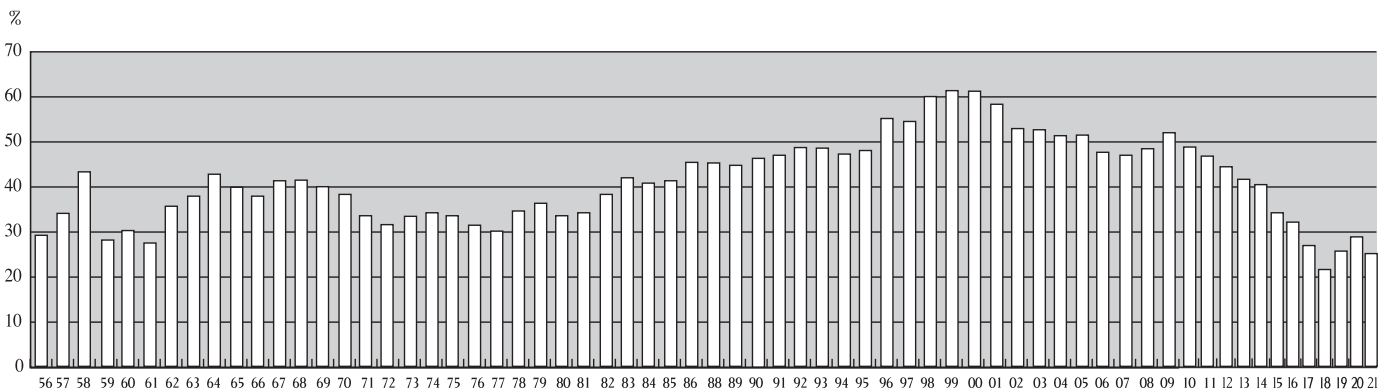
(2001년 4.5%→2011년 9.2%→2021년 25.7%)

60대 이상 남성

(2001년 7.7%→2011년 15.0%→2021년 47.7%)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2.8배, 남성은 3.2배 증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5.7배, 남성은 6.2배 증가)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이혼상담 최고령자 남성 89세, 여성 85세

노년층 남녀 모두 무시, 소외, 고립, 빈곤, 불안 호소

노년 여성

나이 들어서도 남편 폭력 줄지 않아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으로 평생토록 퇴근, 퇴직 못해
자녀들도 재산 있는 아버지 편에 서서 내 고통 외면해
남은 여생 마음만이라도 편히 살고 싶어

노년 남성

일방적으로 아내가 떠나 홀로 남아

경제력 떨어지자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외면 당해
돈 있으면 기대고 돈 없으면 쓸모 없는 사람 취급
한 집 살아도 남보다 못해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고파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1-2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무직,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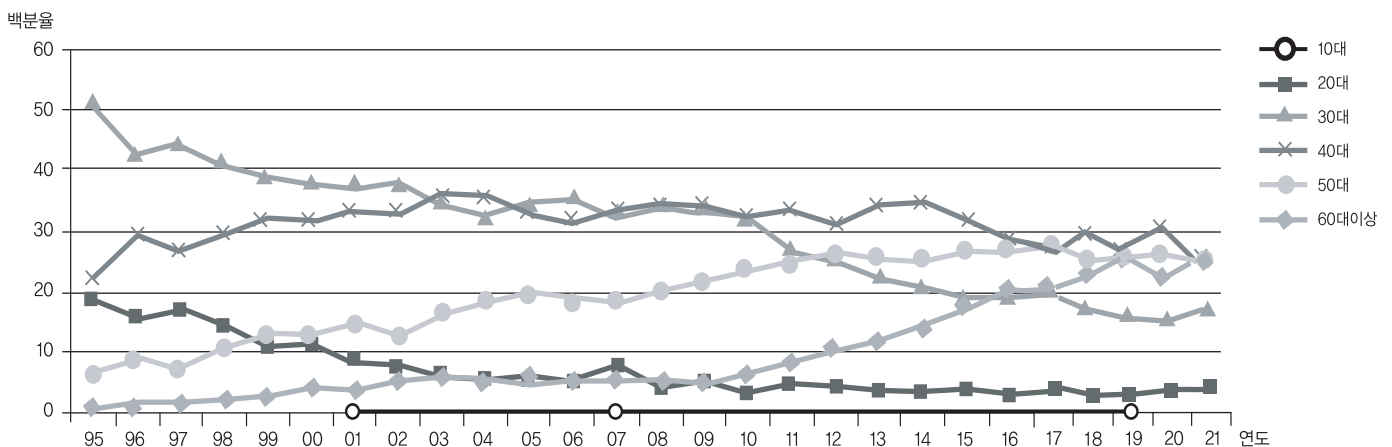
여성은 40대(930명, 26.8%), 60대 이상(894명, 25.7%),

50대(865명, 24.9%), 30대(615명, 17.7%), 20대(171명, 4.9%)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544명, 47.7%), 50대(255명, 22.4%), 40대(240명, 21.0%), 30대(94명, 8.2%), 20대(8명, 0.7%)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년 전인 2001년에는 30대(30대 37.6%, 40대 33.3%, 50대 14.9%, 60대 이상 4.5%)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40대(40대 32.9%, 30대 27.5%, 50대 25.0%, 60대 이상 9.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30대와 40대의 순위만 바뀌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40대, 60대 이상, 50대, 30대(40대 26.8%, 60대 이상 25.7%, 50대 24.9%, 30대 17.7%) 순으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높았으나 2순위인 60대 이상이 30대, 50대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대는 37.6%에서 17.7%로 크게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4.5%에서 25.7%로 크게 증가해 노년 여성의 이혼상담 비율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 역시 20년 전인 2001년에는 30대(30대 46.7%, 40대 25.5%, 50대 13.4%, 60대 이상 7.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40대(40대 32.8%, 30대 24.7%, 50대 24.6%, 60대 이상 15.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2001년과 비교해 볼

이혼 - 여성 연도별 연령별



때 여성과 동일하게 30대와 40대의 순위만 바뀌었다. 그런데 2021년에는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60대 이상 47.7%, 50대 22.4%, 40대 21.0%, 30대 8.2%)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7.7%에서 47.7%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가 불가능하다. 아내가 요구해 부동산도 전부 아내 명의로 해 주었다. 나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 너무 힘이 든다.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 나도 지쳐 이혼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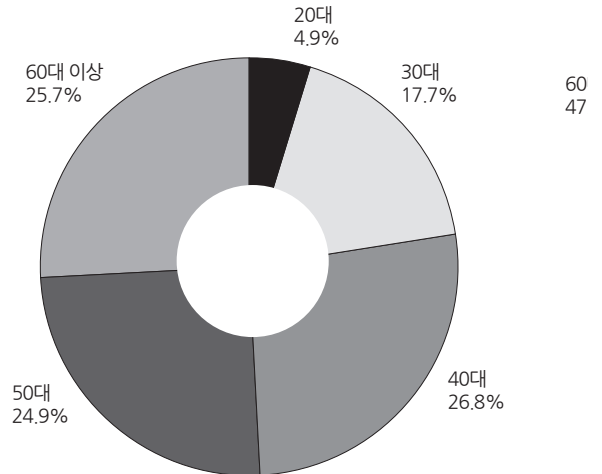
● 여성 40대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여성 40대 / 상대자 남성 40대)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행위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몇 번 있지만 당시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내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내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자기가 번 돈은 혼자 다 썼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큰 돈을 날리기도 했다. 남편에게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가 셋이고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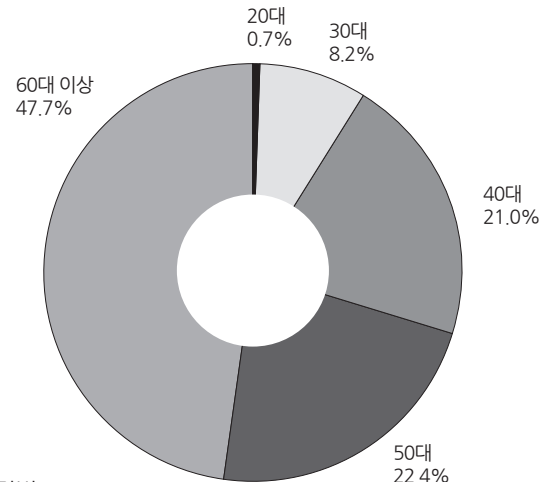
● 남성 60대 이상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남성 60대 / 상대자 여성 60대)

아내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결혼하였다. 밖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부이다. 그런데 실상은 거의 그렇지 않다. 매일 다툰다. 아내는 혼인 초부터 있었던 고부 갈등 문제를 지금도 꺼내 나를 괴롭힌다. 아내가 한번씩 포악을 부리며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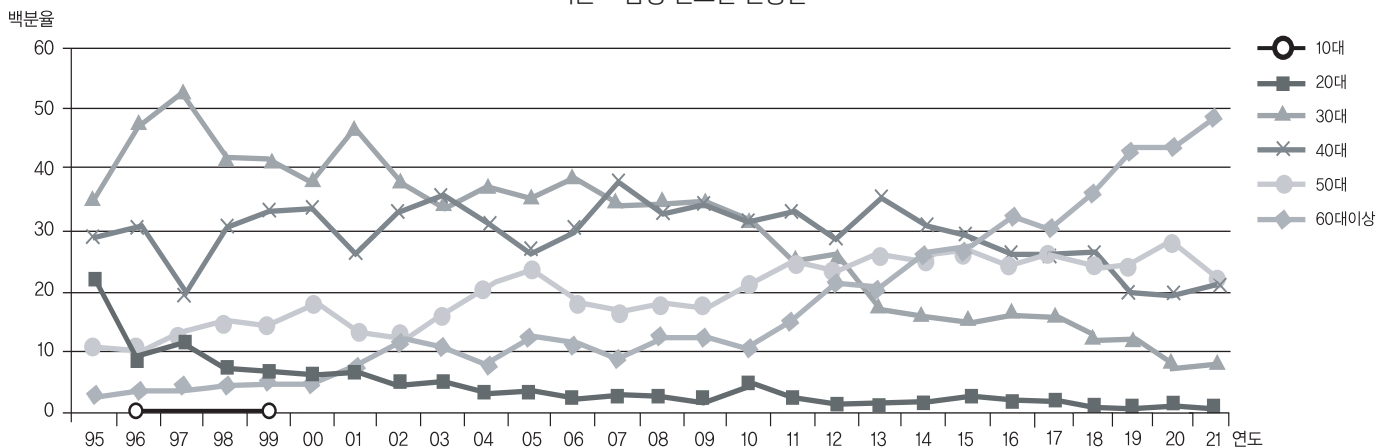
여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남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이혼 - 남성 연도별 연령별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3,475건)

-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민법 제840조 3호)(48.8%, 1,697건)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폭언,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6호)
(29.6%, 1,029건)
- 3위 '남편의 가출'(2호)(13.4%, 467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1,141건)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폭언 등이 우선 순위임)'(6호)(52.7%, 601건)
- 2위 '아내의 가출'(2호)(26.6%, 304건)
- 3위 '아내의 부당대우'(3호)(15.0%, 171건)

여성의 48.8%가 남편 폭력 호소해

남성의 49.8%가 장기별거, 아내 가출 호소해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은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꼽은 경우가 48.8%(1,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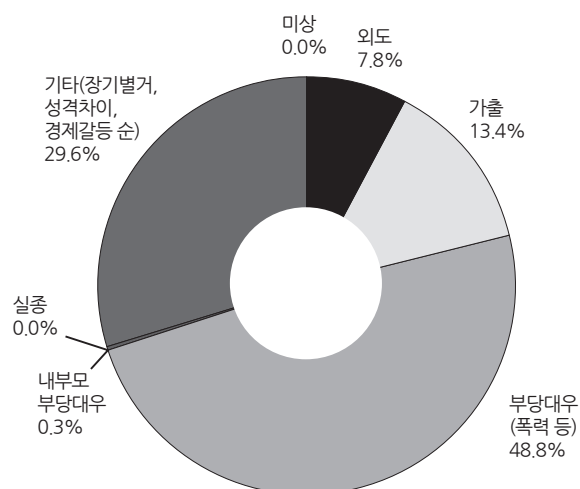
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9.6%, 1,029건), 2호 '남편의 가출'(13.4%, 467건) 순이었다.

이혼 상담을 한 여성의 48.8%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해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편의 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여성들은 2020년 48.3%에서 2021년 48.8%로 더욱 증가하였다. 98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지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내에서 남편의 아내 폭력이 줄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답답함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호소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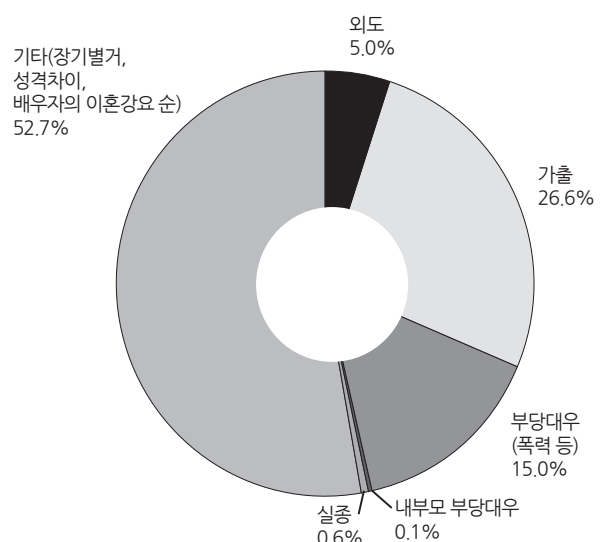
남성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꼽은 경우가 52.7%(60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26.6%, 304건), 3호 '아내의 부당한 대우'(15.0%, 171건) 순이었다. 한편, 1순위인 기타 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2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상담을 한 남성의 49.8%(전체 1,141건 중 장기별거 264건, 아내 가출 304건)가 별거나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

여성의 이혼사유



남성의 이혼사유



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되었고, 법적으로만 혼인관계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호소해왔다. 특히 2호 사유인 ‘아내의 가출’은 2019년 15.8%, 2020년 23.0%, 2021년 26.6%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보면 가출이나 별거를 사유로 제시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 쌍방의 외도나 불성실한 생활, 과도한 빚, 폭행 등 다른 문제들이 먼저 갈등의 요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부부 간 갈등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었으나 적절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일단 집을 나간 경우가 적지 않아 선행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많았다.

● **여성 40대 이혼상담 사례(폭력)**
(내담자 여성 50대 / 상대자 남성 50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경찰서에서 상담소를 소개해 방문하게 되었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수십 번이다. 남편은 심한 알콜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늘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이번에 이혼을 결심한 까닭은 아들이 남편처럼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남편과 생활하다가 아이 상태가 더 악화될 것 같아 어렵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 **남성 60대 이혼상담 사례(가출)**
(내담자 남성 60대 / 상대자 여성 60대)

나는 계속 경제활동을 해 아내에게 부족함 없이 생활비를 주었다. 그런데 10년 전 아내가 원해 가게를 차려주었다. 아내는 지원만 원할 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해 그냥 놔뒀다. 그런데 가게를 엉망으로 운영해 상당한 채무를 져고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내가 뭐라 했더니 아내가 그 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하고자 한다. 현재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 이혼하는 방법은?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등이 많아

6호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029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32.2%(33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3.3%(137건), ‘경제갈등’ 9.6%(99건), ‘생활무능력’ 5.7%(59건), ‘폭언’ 4.9%(50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4.5%(46건), ‘알콜중독’ 3.2%(33건), ‘빚’ 2.9%(30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2.1%(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6호사유(총 601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43.9%(26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7.6%(106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8.5%(51건), ‘경제갈등’ 7.8%(47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폭언’ 각 1.5%(각 9건), ‘거짓말’·‘종교갈등’ 각 1.3%(각 8건), ‘정신병’·‘알콜중독’ 각 1.0%(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여성 32.2, 남성 43.9%), ‘성격차이’(여성 13.3%, 남성 17.6%), ‘경제갈등’(여성 9.6%, 남성 7.8%)을 이유로 한 상담이 많았다.

장기별거 비율,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3.8배, 남성은 5.1배 증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11.1배, 남성은 13.7배 증가
생활고에 쫓겨 배우자와 혼인관계 정리하는 것도

버거워

사실상 이혼상태여도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기초수급 등 지원 못 받아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장기별거’의 비율은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여성은 3.8배, 남성은 5.1배(여성 8.5%→32.2%, 남성 8.6%→43.9%), 2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여성은 11.1배, 남성은 13.7배(여성 2.9%→32.2%, 남성 3.2%→4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보면 별거한 지 오래되어 배우자와 아예 연락이 끊긴 경우

도 있었다. 이들은 사실상 이혼 상태에 놓여 있어도 생활고에 쫓겨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 없이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가정, 임대주택, 각종 지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데 있어 곤란을 겪게 되어 이제라도 이혼 절차를 밟고자 본 상담소에 소송구조 도움을 요청해 오기도 하였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과 10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했는데 나 모르게 빚을 저서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자 가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생활을 책임지며 살다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직장마저 잃어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먹고 살기 바빠 이혼도 미루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 싶어 경찰을 통해 남편을 수소문했더니 남편이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내가 혼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40년 전에 혼인하였다. 사는 동안 성격이 맞지 않아 힘이 들었다. 가정이 편하지 않으니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사업에 실패했고, 20년 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그 때부터 따로 살게 되었다. 현재는 왕래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된 지도 오래 되었다. 나는 오래된 지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도 없다. 현재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한 지도 5년이 넘었다. 생계 유지가 막막해 국가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신청을 했으나 배우자가 있어 어렵다고 하였다. 법률상으로만 남아 있는 부부 관계를 끝내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

남녀 모두 '성격차이' 주장하는 이들 많아 명확한 유책성 없어 재판 이혼 진행하기도 어려워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격차이'(6호사유 중 여성 13.3%, 남성 17.6%)를 이유로 한 상담의 비율이 높았다. 성격차이는 6호사유 중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사유이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내담자들은 혼인 초부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혼인 기간 내내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해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재판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으나 딱히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득이나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경제 더 어려워져 궁핍한 가정 경제, 고스란히 가정불화로 이어져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6호사유 중 여성 9.6%, 남성 7.8%)을 이유로 한 상담의 비율이 높았고, 2020년(여성 7.6%→9.6%, 남성 4.2%→7.8%)에 비해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안 그래도 사는 게 팍팍했는데 그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 위기 상태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2-3년 사이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치솟으면서 부부 간에 투자에 대한 의견이 달라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이들도 있었다. 배우자의 반대로 투자를 못한 경우, 배우자 몰래 무리한 투자를 해 손해를 본 경우, 실직 후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해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들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된 가정이 많았고, 궁핍한 가정 경제 사정이 고스란히 가정불화로 이어져 이혼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남성)

경제활동을 위해 지방에 혼자 떨어져 살며 일을 하고 생활비를 보내왔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흥청망청 탕진해왔고 매일 술에 빠져 지냈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 참고 지냈는데 아내는 수시로 내게 문자와 전화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지난 번에 다투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내가 신고하였고 벌금형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직장마저 잃게 되어 생활비는커녕 벌금 낼 돈도 없는 상황이다. 어느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아 결국은 내가 그냥 집을 나오게 되었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은 가게를 한다. 평생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다 안 주다 했으며 돈으로 나를 압박했다. 이제껏 나도 안 해 본 일이 없다. 이제 아이들도 다 결혼시켰고 해서 편안하게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핑계로 아예 나가지를 않아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렵게 되었다. 있는 돈 반으로 나누면 방 얻을 돈도 안 되기에 어지간하면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한 집에서도 남편처럼 지내 더 이상은 나도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배우자의 이혼강요’ 증가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배우자의 이혼강요’의 비율이 남녀 모두 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3.9%→4.5%, 남성 4.2%→8.5%). 상담을 통해 보면, 다양한 갈등이 계속 있어왔으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덮고 지내온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상대방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 등 이혼요구가 구체화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상태에 놓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일부 내담자들 중에는 배우자의 이혼요구를 알아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이혼에 응할 수 없었으나 그럴수록 상대의 무시, 냉대, 경제적 압박 등이 심해져 결국에는 지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들도 있었다.

● 배우자의 이혼강요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이 외도를 한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받아 2년째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평소 남편 행동을 볼 때 의심이 가는 하였으나 아이들 키우며 바쁘다 보니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내가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다. 웃지 않는다’ 등의 타박을 하며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양 떠넘긴 후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가 다 용서하겠다 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회복불가하다며 갈수록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다.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나도 이혼으로 마음이 기운다.

● 배우자의 이혼강요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나는 몇 년 전 퇴직하였고 현재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살면서 다툼도 많았으나 위기를 넘겨가며 그래도 나를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러댔다. 오래된 아파트라 그 소리가 다 들리기에 아내 입을 막았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같이 있기 어려워 그 일이 있은 후 내가 나와서 생활하고 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혼하고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한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자 하였더니 아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무조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져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처가와외의 갈등’의 비율이 남녀 모두 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0.1%→0.4%, 남성 0.5%→0.7%). 양성평등 의식이 확대되면서 장인, 장모는 딸과 사위에 대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기대하는 반면, 사위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역할 모델에 사로잡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처가에 의존할 경우 그 갈등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호소해왔다.

● 처가와외의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남성)

아내와 나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장인장모가 신용 불량자여서 아내는 대학 졸업한 후부터 계속해서 처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결혼 후 장인은 나에게 기획 부동산에 억지로 투자를 하게 하는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다. 아내와 장인장모는 사위가 그것도 못해준다며 오하러 나를 몰아세웠다. 아내는 여전히 처가의 월세를 내주고 있고 나 몰래 차를 사주는 등 계속해서 처가를 지원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계속 돈을 벌어도 우리 가정 경제는 엉망이다. 내가 화를 냈더니 내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 처가와외의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여성)

10년 전 결혼했고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다. 아이가 한 명 있고 그 아이를 친정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계속 키워주셨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남편이 더 이상 친정어머니와 같이 못 살겠다며 시부모님 댁으로 가버렸다. 친정어머니 때문에 사는 내내 불편했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는 양육비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 친정어머니에게 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친정어머니 볼 면목이 더 없어졌다. 나도 더 이상은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종교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경우도 많아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종교갈등’의 비율도 남녀 모두 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0.3%→0.5%, 남성 0.5%→1.3%). 이들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져가 갈등이 유발되기보다는 배우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과도하게 종교 활동을 해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과도한 헌금, 종교 활동을 이유로 한 잦은 모임 등이었다.

● 종교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남성)

아내가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로 인한 갈등 때문에 다툼이 잦았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사업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결국 15년 전 하던 가게도 폐업하게 되었다.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도 잃었다. 적은 돈만 남았지만 나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출발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며 종전 거주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그 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다. 현재 아내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이혼하는 방법은?

● 종교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이 10년 전부터 이단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기에 돈을 내려고 하였다. 내가 못하게 막고 설득하려고 하였더니 나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였다. 결국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남편은 집을 나가 혼자 살았다. 그러다 남편이 가끔 집에 왔고 나도 남편 사는 곳으로 가곤 하였다. 관계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 남편이 공부를 하자며 그 이단종교에 나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 남편은 바뀌지 않고 바뀔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이혼하려고 한다.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20년 →2021년)

여성			남성		
사유	2020년(%)	2021년(%)	사유	2020(%)	2021년(%)
불신	1.5	1.9	경제갈등	4.2	7.8
거짓말	1.4	1.7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0.7	1.5
경제갈등	7.6	9.6	종교갈등	0.5	1.3
생활무능력	3.9	5.7	불임	-	0.2
불성실한 생활	0.5	1.2	알콜중독	0.4	1.0
사치/낭비/허영	-	0.2	폭언	-	1.5
도박	0.7	1.3	자녀학대	-	0.3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0.7	2.1	찾은 가출	0.2	0.3
종교갈등	0.3	0.5	찾은외박	-	0.5
성격차이	13.1	13.3	애정상실	0.2	0.5
성적갈등	0.8	1.6	대화단절	0.2	0.3
불임	-	0.1	처가와의 갈등	0.5	0.7
신체적 질병	0.4	1.2	전혼자녀와의 갈등	-	0.2
마마보이	-	0.1	배우자의 이혼강요	4.2	8.5
주벽	0.6	1.6	동성애	-	0.2
자녀학대	0.1	0.3			
장기별거	29.8	32.2			
처가와의 갈등	0.1	0.4			
전혼자녀와의 갈등	-	0.1			
배우자의 이혼강요	3.9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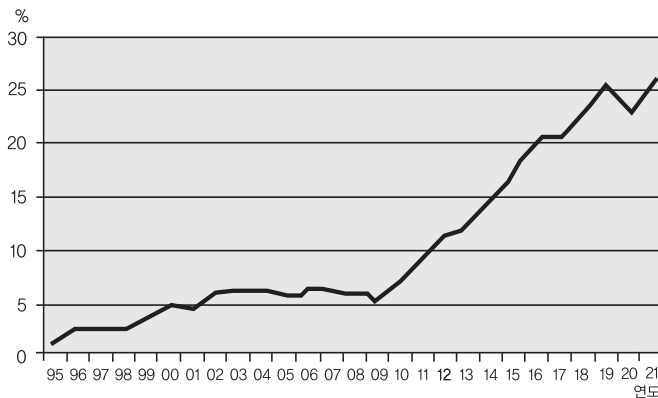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노년 이혼상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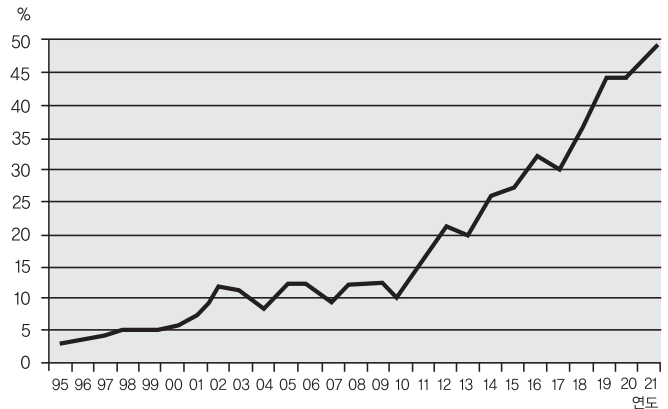
이혼상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 분석 첫 해인 1995년에는 60대 이상이 여성 1.2%, 남성 2.8%로 매우 낮았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년 전인 2001년에는 여성 4.5%, 남성 7.7%, 10년 전인 2011년에는 여성 9.2%, 남성 15.0%로 나타났고, 2021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25.7%, 남성 47.7%를 기록하였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2.8배, 남성은 3.2배,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5.7배, 남성은 6.2배 증가하였다.

2021년도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894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660명, 70대는 201명, 80대 이상은 33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544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319명, 70대는 181명, 80대 이상은 44명이었다. 한편, 이혼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남성 89세, 여성 85세였다.

연도별 60대 이상 여성 이혼상담 비율



연도별 60대 이상 남성 이혼상담 비율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여성	남성
1995년	41명(1.2%)	15명(2.8%)
1996년	91명(2.4%)	22명(3.6%)
1997년	96명(2.5%)	25명(4.0%)
1998년	123명(2.7%)	35명(4.6%)
1999년	156명(3.5%)	36명(4.8%)
2000년	237명(4.9%)	41명(5.2%)
2001년	203명(4.5%)	48명(7.7%)
2002년	223명(5.8%)	73명(11.6%)
2003년	212명(6.2%)	60명(10.7%)
2004년	205명(6.2%)	45명(8.4%)
2005년	179명(5.8%)	53명(12.5%)
2006년	211명(6.1%)	60명(11.4%)
2007년	216명(6.0%)	68명(9.0%)
2008년	209명(5.8%)	70명(12.4%)
2009년	213명(5.5%)	79명(12.5%)
2010년	254명(7.0%)	57명(10.5%)
2011년	402명(9.2%)	122명(15.0%)
2012년	521명(11.4%)	175명(21.0%)
2013년	689명(12.4%)	272명(20.1%)
2014년	752명(14.8%)	373명(26.1%)
2015년	996명(18.1%)	524명(27.2%)
2016년	1,038명(20.7%)	626명(31.9%)
2017년	818명(21.1%)	409명(30.4%)
2018년	774명(23.5%)	495명(36.3%)
2019년	870명(25.3%)	586명(43.5%)
2020년	728명(22.3%)	426명(43.5%)
2021년	894명(25.7%)	544명(47.7%)

노년 여성,

나이 들어서도 남편 폭력 줄지 않아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으로 평생토록 퇴근, 퇴직 못해
자녀들도 재산 있는 아버지 편에 서서 내 고통 외면해
남은 여생 마음만이라도 편히 살고 싶어

노년 남성,

일방적으로 아내가 떠나 홀로 남아

경제력 떨어지자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외면 당해
돈 있으면 기대고 돈 없으면 무능하고 쓸모 없는 사람 취급
한 집 살아도 남보다 못해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고파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알콜중독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남편의 가출) 순, 70대는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남편의 가출) 순, 80대 이상은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남편의 가출)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 7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 80대 이상은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알콜중독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70대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80대 이상	6호(기타-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이었다.

노년층에서는 70대 여성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1순위로 6호사유를 제시하였다.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로 여성 60대는 경제갈등, 여성 80대는 배우자의 이혼강요, 남성 60대, 70대, 80대 이상에서는 성격차이를 꼽았다.

70대 여성은 이혼사유로 3호 남편의 폭력을 1순위로 제시하였다. 60대와 80대 이상 여성도 남편의 폭력을 2순위로 제시해 여성의 경우 노년층에서도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이혼사유로 나타났다.

한편, 60대, 70대, 80대 이상 여성 모두 2호(남편의 가출)사유를 3순위로 제시하였고, 60대, 70대 80대 이상 남성 모두 2호(아내의 가출)사유를 2순위로 제시하여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도 노년층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 여성들은 오로지 자식과 남편만 바라보며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으로 퇴근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늙어서도 퇴직할 수 없어 고통스럽다고 호소해왔다. 늙고 병들어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이 드는데 생활비를 이유로 한 남편의 통제와 억압이 계속되고 늙어서도 남편의 폭행이 줄어들지 않아 더 이상은 견딜 힘이 없다고 호소해왔다. 나를 희생해

내가 지킨 자녀들도 결국에는 재산 있는 아버지 편에 서서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손자녀 양육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기댈 곳이 되지 못해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는 게 팍팍하고 막막하다고 호소해왔다. 기대 수명 증가로 언제까지 남편 눈치 보며 살 수 없어 이제라도 혼인 관계를 정리해 내 몫의 재산을 찾고 하루를 살아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상담을 해왔다.

노년 남성들은 장기별거와 아내의 가출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아내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 손자녀 돌봄을 이유로 한 아내의 자녀집 거주, 무단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아내가 떠났다고 하였다. 또한, 젊어서 가족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퇴직하고 경제력이 떨어지자 제일 먼저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외면 당했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곤궁, 소외, 박탈감 등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렵다는 호소를 해왔다. 한편, 내담자 본인도 고령이 되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여전히 아내가 일방적으로 생활비 부담을 강요하고 자녀들이 독립 여부와 상관 없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 와 힘들다고 하였다. 아내와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경우 무능하고 쓸모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한 집에 거주해도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해 이제는 그러한 고통과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호소를 해왔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모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5달 전부터 남편과 따로 지내고 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외적인 평판, 위신, 명예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이혼을 절대 못한다며 나보고 그냥 나가 살라고만 했다. 남편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아이들이 더 내게 이혼을 권하고 있다. 살면서 수도 없이 폭언을 들었지만 차마 녹음할 생각은 못했다. 이번에 나올 때 처음 녹음을 했다. 현재 공동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고 남편이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다. 내 몫의 재산을 분할 받고 이혼하고 싶다.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와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최근 5년 간 별거 중이다. 아내는 4년 전부터 손녀를 봐준다고 딸 집에 가서 생활하고 있다. 아내는 아예 딸 집 근처로 이사 가자고 하였으나 나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기 싫어 이사를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별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다. 별거하는 기간동안에도 나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줬었다. 나는 혼자 매일 삼시세끼를 다 사먹고 있어 지겹다. 계속 이렇게 지낼 바에는 이혼하고 싶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은 신혼 초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해 80세가 다 되어서는 지금까지도 나를 폭행한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남편은 성격이 과격해 수시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50대에 퇴직한 후 계속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재테크에 능해 재산을 꽤 많이 모았는데 남편은 워낙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강해 뭐든 남편 명의로 해야만 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찾아오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평생을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2006년 암에 걸려 죽다 살아났다. 퇴원 후에도 경비원 일을 계속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려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일하기가 힘들어 쉬고 있는데 50만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러니 어려웠다. 그래서 아내에게 임대아파트 월세만이라도 부담하라고 했더니 아내가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게 폭언을 해댔다. 나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수억 원도 더 벌었는데 겨우 그것 가지고 뭐라 하니 억울해 이혼하고 싶다.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은 매사 독단적이다. 현재 남편 명의로 다가구 주택이 하나 있다. 빈 집이 있어 수리해 내놓으려고 했더니 남편이 마음대로 싼값에 계약을 해버렸다. 그 문제로 다투더니 남편이 내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였다. 남편은 월세를 받아 마음대로 쓰면서 내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 현재 나는 아들네 손자를 봐주는데 할머니이기에 돈을 받지 않는다. 남편은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에서는 폭군처럼 행동한다.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 않고 같이 살 이유도 없어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분할 받고 싶다.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 틈만 나면 과거 이야기를 하며 나를 괴롭히고 나더러 나가라고 한다. 아내와는 대화가 전혀 안 된다. 아내는 무조건 나를 냉대하고 무시하며 강아지처럼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한다. 아내는 문도 광광 닫고 커튼도 찢어질 듯 신경질 적으로 친다. 식사도 차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구박 받고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요구했더니 아내가 응하지 않는다. 자녀들도 그냥 이대로 지내라며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집에서 왕따 같은 기분이 든다.

기타 면접상담 분석

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상담 건수 늘어

이혼에 대한 협의를 끝내거나 이혼을 한 후 재산이나 자녀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해오는 경우에는 위자료·재산분할, 양육비 등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2020년에 비해 위자료·재산분할(311건→404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243건→324건), 양육비(655건→756건), 면접교섭권(92건→101건)에 대한 상담이 모두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이혼 후 겪게 되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되도록 참으면서 이혼 자체에 대해 고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근래에는 자신과 자녀의 삶의 질을 고려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혼에 대한 결단을 빠르게 내리고 이혼 후 겪게 될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등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져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혼 후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해진 점, 양육비 청구 및 강제집행 절차가 좀더 수월해진 점,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점 등으로 이혼 후 경제적 여건이 향상된 것도 이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자료·재산분할 상담사례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중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나는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남편은 공무원이다. 박봉이었으나 알뜰살뜰 모아 집도 장만하였다. 남편은 주식 투자를 해서 큰돈을 잃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 혼자 일했다며 내게 5천만원을 줄테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한다. 연금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다. 억울하다. 내 몫의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고 싶다.

● 친권·양육권, 양육비 상담사례 (내담자 40대 여성)

13년 전 이혼을 하면서 내가 미성년 자녀(당시 6세, 3세)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기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이들은 현재 5년 정도 상대방을 만나지 않았다. 이혼 후부터 나는 계속 친정에 들어가 살며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키웠다. 문제는 현재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 만일 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아이들의 친권자가 될까봐 걱정이다.

● 면접교섭권 상담사례 (내담자 20대 여성)

전남편과 이혼한 지 2년정도 되었다. 협의이혼하면서 아이들 친권, 양육권은 모두 전남편이 갖기로 하였다. 양육비는 내가 형편이 어려워 당장은 못 주더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혼을 한 후 전남편이 한동안은 아이들을 잘 보여줬었다. 그런데 최근 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전남편에게도 여자친구가 있고 아이들과도 함께 만나는 것으로 안다. 나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되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다.

파산 상담 건수 늘어

본 상담소에서는 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지역자활센터 등의 시설 종사자 및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파산 면책 교육 및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혼 등 가사관련 상담을 위해 방문한 내담자들의 경우에도 과중한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은 파산 상담을 함께 진행하였다. 파산 상담 건수는 2020년 561건에서 2021년 641건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2021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에서는 총 125건의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 파산 상담사례 (내담자 60대 남성)

사업을 하다 잘못되어서 2014년 부동산이 경매처리되었다. 그 때부터 빚에 쫓기기 시작하였다. 현재 나는 청소 인력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액이 5천만원 가량 있어서 2020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중이다. 월 20만원 가량 납입해야 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일거리가 없어서 3회만 납부하고 현재 못하고 있다. 아내와 아들은 현재 친척집에 거주 중이고 나는 고시원에 거주 중이다. 파산을 신청하고 싶다.

● 파산 상담사례 (내담자 50대 여성)

2004년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낳고 평범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건설업을 하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다행히 작은 사업체를 다시 시작해 빚도 다 갚았다. 그런데 2017년경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경영난이 시작되었다. 적자가 쌓이다보니 결국 신용대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다시 폐업하게 되었다. 채무 변제를 위해 마트에서 일하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2021년 면접상담 사건내용별 분석표

사 건 내 용		성 별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 사 18,087건 (95.1%)	남녀관계			46	0.4	45	0.5	91	0.5
	파 혼			-	-	-	-	-	-
	부부갈등			1,730	16.7	3,128	36.0	4,858	25.5
	이 혼			3,475	33.6	1,141	13.1	4,616	24.3
	사실혼해소			60	0.6	31	0.4	91	0.5
	위자료·재산분할			276	2.7	128	1.5	404	2.1
	친권·양육권			230	2.2	94	1.1	324	1.7
	양육비			616	6.0	140	1.6	756	4.0
	면접교섭권			63	0.6	38	0.4	101	0.5
	인 지			91	0.9	16	0.2	107	0.6
	친생부인			75	0.7	15	0.2	90	0.5
	친생자관계존부			323	3.1	184	2.1	507	2.7
	입양			43	0.4	41	0.5	84	0.4
	파양			22	0.2	23	0.3	45	0.2
	친양자			25	0.2	22	0.3	47	0.2
	혼인무효·취소			27	0.3	31	0.4	58	0.3
	이혼무효·취소			4	0.0	2	0.0	6	0.0
	부양관계			32	0.3	20	0.2	52	0.3
	유언·상속			833	8.1	774	8.9	1,607	8.4
	가족관계등록부			250	2.4	292	3.4	542	2.8
	성변경			117	1.1	47	0.5	164	0.9
	개명			88	0.9	53	0.6	141	0.7
	미성년후견			222	2.1	58	0.7	280	1.5
	성년후견			527	5.1	459	5.3	986	5.2
	가사절차			293	2.8	228	2.6	521	2.7
	기타			454	4.4	1,155	13.3	1,609	8.5
민 사 837건 (4.4%)	임대차			7	0.1	1	0.0	8	0.0
	부동산			24	0.2	8	0.1	32	0.2
	채권·채무			41	0.4	29	0.3	70	0.4
	파산			244	2.4	397	4.6	641	3.4
	개인회생			9	0.1	5	0.1	14	0.1
	민사절차			9	0.1	5	0.1	14	0.1
	민사기타			34	0.3	24	0.3	58	0.3
형 사 99건 (0.5%)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	-	-	-	-	-
	성폭행			2	-	-	-	2	0.0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15	0.1	15	0.2	30	0.2
	형사기타			38	0.4	29	0.3	67	0.4
합 계				10,345	100.0	8,678	100.0	19,023	100.0

김진영 상담위원

특집 ②

2021년도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소송구조 사건분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파산 앞으로 더욱 증가 예상 파산면책신청인 중 50대 이상이 84.8%로 2020년보다 14.2%p 증가

신청자의 87.2%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

본소와 서울회생법원간의 협약에 따른 패스트트랙에 의해 신속한 결정,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평균 4~5개월 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체되는 가정 등의 문제에 주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소의 파산·면책소송구조는 2006년 60건으로 시작하여 2021년 12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¹⁾ 본소를 방문한 내담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으로부터 연계된 빈곤·저소득·소외계층 및 노숙인 등을 포괄하고 있다. 개인채무는 흔히 채무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소득이 채무의 한 달 이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계좌가 출금정지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국가의 보조에 의존하거나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의 면책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와 가정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소의 법률구조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먼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간

략히 소개하면,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 후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재판으로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제도이다.

파산결정 후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그러나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다. ①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②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③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

1) <연도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파산·면책소송구조 건수>

연도	2012	2014	2016	2017	2020
빈도(건)	90	97	149	154	152

지 아니하다), ⑦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의 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다. 2021년 12월부터 종전에는 면책불허채무이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가능한 채무가 되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으로 소멸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복권(復權)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파산자로 남게 된다.

한편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3년 동안 소득의 일정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즉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과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다.

상담 내용과 신청서, 법원 결정문 등을 토대로 신청인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 상황,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경위,

그리고 사건의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1. 신청인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신청인의 성별은 남성이 72명(57.6%), 여성이 53명(42.4%)으로 근소한 차이지만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표-1 신청인의 성별〉

구분	여성	남성	합계
빈도(명)	53	72	125
비율(%)	42.4	57.6	100

(2) 연령

신청인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대가 54명(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 34명(27.2%), 70대 16명(12.8%), 40대 15명(12.0%), 30대 3명(2.4%), 80대 이상 2명(1.6%), 20대 1명(0.8%)²⁾의 순이었다. 신청인의 10명 중 8명 이상(84.8%)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2020년 50대 이상의 파산면책신청인(70.6%, 101명)보다 14.2%p 증가하였다.³⁾ 노년을 준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빚으로 파산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빈곤 문제가 50대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갭생이 가능한 중장년층에게 신용회복 및 사회복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소의 법률구조의 의미가 크다.

2) 신청인(여성, 20대, 중졸, 월수입 68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은 임신으로 학교 자퇴 후 생활고가 지속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은행 대출과 사채로 충당하면서 원금과 이자납입을 위해 채무둘러막기를 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로, 총 채무액은 137,911,673 원(채권자 수 10명)이었다.

3) 〈2020년 본소 파산면책 등 신청인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3	2.1
30대	10	7.0
40대	29	20.3
50대	63	44.0
60대	33	23.1
70대 이상	5	3.5
합계	143	100

〈표-2 신청인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1	0.8
30대	3	2.4
40대	15	12.0
50대	34	27.2
60대	54	43.2
70대	16	12.8
80대 이상	2	1.6
합계	125	100

(3) 학력

신청인의 교육 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49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25명(20.0%), 초등학교 졸업 19명(15.2%), 대학교 졸업 이상 18명(14.4%)의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청인이 60.8%(76명)에 달했다.

〈표-3 신청인의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무학	5	4
초졸	19	15.2
중졸	25	20
고졸	49	39.2
전문대졸	9	7.2
대졸이상	18	14.4
합계	125	100

2. 신청인의 생활상황 분석

(1) 직업

신청인 대부분은 개인파산 등 신청 당시 무직(104명, 83.2%)이거나 공공근로 및 일용직과 같은 단순노무에 종사(16명, 12.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사례에서 보면 신청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채무로

인해 자신의 전문적 기술이나 경력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4 신청인의 직업〉

직업	빈도(명)	비율(%)
회사원	4	3.2
공공근로	1	0.8
일용직	14	11.2
단순노무	1	0.8
자영업	1	0.8
무직	104	83.2
합계	125	100

(2) 월수입

신청인의 월수입을 보면, 소득이 없거나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4.8%(56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42.4%(53명)이었다. 이처럼 100만 원 미만의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87.2%(109명)에 달하여, 대부분의 신청인이 경제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다. 월수입이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개인회생 신청인이었다.⁴⁾

〈표-5 신청인의 월수입〉

월수입	빈도(명)	비율(%)
무, 미상	30	24.0
1~50만 원 미만	26	20.8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53	42.4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5	12.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	0.8
합계	125	100

(3) 주거형태

신청인의 주거형태는 신청인 또는 가족 및 지인의 임대주택(88명, 70.4%), 친족 소유 주택(16명, 12.8%), 친족 이외 자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7명, 5.6%), 쉼터(8명, 6.4%) 등이었다.

4) 여성(50대, 고졸), 회사원, 월수입 200~300만 원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채무액 : 54,964,846원, 채무증대경위 : 생활비부족

〈표-6 신청인의 주거상황〉

구분	빈도(명)	비율(%)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	88	70.4
친족 소유 주택 무상 거주	16	12.8
친족 이외의 자 소유 주택 무상 거주	7	5.6
임대 거주	8	6.4
기타	6	4.8
합계	125	100

신청인의 70.4%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인 70명(79.6%),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경우 30명(34.1%) 등으로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신청인 또는 가족, 지인의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임대주택 보증금	빈도(명)	비율(%)
없음	14	15.9
100만 원 미만	16	18.2
100만 이상 ~ 300만 원 미만	11	12.5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16	18.2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13	14.8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4	4.5
2,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10	11.4
5,000만 원 이상	4	4.5
합계	88	100

3.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경위 분석

가. 채무액 분석

(1) 신청인의 채무액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6.8%(46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9.6%(37명)이었다. 채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13.6%(17명)이었다. 이중 1,000만 원 미만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개인파산·면책 신청인도 1명이 있었는데, 신청인(남성, 60대)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뇌병변 장애와 함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소액의 채무인 경우에도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현재 생활상황 등으

로 미루어보아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다면 신용회복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표-8 신청인의 채무액〉

채무액	빈도(명)	비율(%)
1,000만 원 미만	1	0.8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16	12.8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10	8.0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37	29.6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46	36.8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4	3.2
5억 원 이상	11	8.8
합계	125	100

(2) 채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신청인(17명)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9명(52.9%), 50대 5명(29.4%), 40대 2명(11.8%), 30대 1명(5.9%)으로, 소액의 채무로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는 고령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신청 당시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 94.1%(16명)이었고, 직업이 있는 1명(여성, 40대)은 일용직 근로자로 월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신청자의 월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16명(94.1%),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1명이었다. 월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아픈 남편과 동거 중인 50대 여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비로 월 120만 원(2인가족)을 받고 있었다. 이들 신청자의 58.8%(10명)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주거상황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형태(76.5%, 13명)가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500만 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월 5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리고 쉼터나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17.6%, 3명), 고시원 등 30만 원 미만의 임차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5.9%, 1명)도 있었다.

〈표-9 채무 3,000만원 미만의 신청인〉

(단위 : 명)

연령 \ 성별	남성	여성	합계
30대 (비율 %)	0 (0.0%)	1 (5.9%)	1 (5.9%)
40대 (비율 %)	1 (5.9%)	1 (5.9%)	2 (11.8%)
50대 (비율 %)	3 (17.6%)	2 (11.8%)	5 (29.4%)
60대 (비율 %)	1 (5.9%)	2 (11.8%)	3 (17.7%)
70대 (비율 %)	3 (17.6%)	3 (17.6%)	6 (35.2%)
합계	8 (47.1%)	9 (52.9%)	17 (100%)

- 채무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사례

● 사례 1. (여성, 30대)

혼인 당시 배우자가 3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함. 이후에도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함. 배우자의 이런 불성실한 생활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됨. 원금이자를 꾸준히 갚아나가던 중 배우자가 퇴직 후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음. 배우자는 알코올의존 증에 빠져 가정불화가 극심해졌고, 가정폭력으로 결국 신청인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가족쉼터에서 무상거주 중임. 자녀의 양육문제와 코로나19가 겹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

● 사례 2. (남성, 40대)

신청인은 알코올중독인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자였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 후, 홀로 생활하였음.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구직이 어려워 술에 의존하며 노숙생활을 하게 됨. 현재는 자활근로(계약직)를 하며 소득이 있으나 1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움.

● 사례 3. (여성, 50대)

사실혼 관계 중 배우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 신청인의 소득만으로 생활함.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계비로 사용함.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으나 2019년 권고사직 당하였고, 현재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음.

● 사례 4. (여성, 50대)

북한이탈주민으로 갑상선암을 진단받음. 급작스럽게 증가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됨.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게 됨.

● 사례 5. (남성, 50대)

2019년경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 2020년경 뇌경색을 앓게 되었고, 오른 팔이 마비 되었으며 기억력상실, 인지장애, 언어장애까지 생기게 되어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함.

(3) 신청인 125명의 총 채무액은 623,153,887,999원에 달하였다. 최저 채무액은 8,309,720원이고, 최고 채무액은 3,274,195,603원이었다. 최고 채무액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신청인(남성, 60대, 대출)은 유통 사업을 진행하던 중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면서 약 32억 원(원금 채무 6억여 원, 이자 채무 약 26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다. 최다 채권자는 16명인 경우로, 신청인(여성, 60대, 대출)은 경험 부족과 IMF 외환위기로 인해 2번의 사업이 모두 실패하여 소유하였던 부동산도 경매처분이 되었으나 9천 400여만 원의 부채가 남아 채무독촉을 당하던 중, 100만 원 미만의 월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생긴 부채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 여파가 미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 또는 폐업을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한 후유증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0 평균 채무액 및 평균 채권자 수〉

채무 총액	23,153,887,999원
최고 채무액	3,274,195,603원
최저 채무액	8,309,720원
최다 채권자 수	16명
1인당 평균 채무액	185,231,103원
평균 채권자 수	5명

나. 채무증대경위 분석

채무증대경위란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의 원인이 된 채무의 발생 이유로서, 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검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채무가 증대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유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신청서에는 채무증대경위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아래의 분석도 이를 전제로 하였다.

〈표-11 신청인의 채무증대경위〉

채무증대경위	빈도(명)	비율(%)
생활비부족	93	60.5
사업의 경영파탄	35	22.7
채무 보증	6	3.9
사기 피해	15	9.7
기타	5	3.2
합계	154	100

(1) 생활비 부족

신청인들이 채무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93명, 60.5%). 상담내용을 통해 보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은 카드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현금 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할부금을 내는 방법, 즉 소위 카드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카드돌려막기를 통해 생활비와 카드대금의 일부를 충당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2) 사업의 경영파탄

두 번째로는 사업의 경영파탄으로 인한 경우였다(35명, 22.7%). 이는 신청인들 중 과거에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⁵⁾ 사업으로 인해 지게 되는 채무의 경우 통상 그 채무 액수가 큰 경우가 많아 신청인들이 변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3) 사기 피해

세 번째 사유는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였다(15명, 9.7%). 사기 피해의 경우, 신청인들이 부동산이나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후에 투자 권유자와 연락이 끊기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대여해 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를 떠안게 된 피해사례들이 적지 않아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 이들의 경우, 노숙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몇십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제3자는 이를 대출에 사용하여 빚을 지게 된 경우였다. 그리고 이들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부채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실거주지에 주소를 두게 되면서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명의대여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후에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다. 또한 명의대여는 이들로부터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은 자들이 대포차, 대포폰 등

5) 〈신청인의 과거 경력〉

직업	회사원	일용직	단순노무	자영업	군인	교육직	운전	간호사	농수산임목	무직	합계
빈도(명)	32	18	10	39	1	1	3	1	1	19	125
비율(%)	25.6	14.4	8	31.2	0.8	0.8	2.4	0.8	0.8	15.2	100

을 구입하여 범죄 등에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4) 채무보증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채무가 증대한 경우도 3.9%(6명)에 달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다. 지급불능경위 분석

지급불능경위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이다. 자신의 수입과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급불능경위 또한 복수 응답이 가능하며, 아래의 분석도 이를 전제로 하였다.

〈표-12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지급불능경위	빈도(명)	비율(%)
원리금의 수입초과	76	37.5
실직	39	19.2
사업폐업	35	17.2
입원	24	11.8
급여 또는 소득감소	23	11.3
기타	6	3.0
합계	203	100

(1) 원리금의 수입초과

신청인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76명, 37.5%)였다. 채무자들이 처음 돈을 빌릴 때는 원금만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원금의 상환과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채무자들은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가 소득으로 어려워지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제1금융권의 채무를 일

부 변제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대출을 받았던 원금과 이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채무자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 채권자는 부실채권을 제2금융권으로 매각하고, 채권을 양수한 제2금융권은 채무자에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독촉을 하면서 채무자의 채무상환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2) 실직

지급불능경위 중 두 번째는 실직(39명, 19.2%)으로 신청자 중에는 급여가 압류된 이후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재무 상황이 열악한 채무자가 근로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은 채무 변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로 인해 오히려 실직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3) 사업폐업

지급불능경위 중 세 번째는 경영사정악화로 인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로(35명, 17.2%), 2020년보다 6%p 증가하였다(2020년 11.2%)⁹⁾.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이로 인한 수입 감소가 폐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 질병

신청인들의 11.8%(24명)는 건강을 잃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채무독촉과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이는 신체적 질병으로도 이어졌다. 그 밖에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입원을 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6) 〈2020년 신청인의 지급불능경위〉

지급불능경위	원리금의 수입초과	급여또는소득감소	실직	사업폐업	입원	기타	합계
빈도(명)	124	48	36	31	19	18	276
비율(%)	44.9	17.4	13.1	11.2	6.9	6.5	100

〈표-13 사건결과〉

구분	빈도(건)	비율(%)	승소율 100.0(%)**		
종결	76건 (파산및면책 73건/ 개인회생 3건)	60.8	종결사건 76(건)		
진행중	49건 (파산및면책)	39.2	승소	기각	취하
계	125건	100.0	75	0	1 (파산및면책)

** 승소율 : (승소)/(승소+기각)

4. 사건결과 분석

본 상담소가 2021년도 진행한 사건(125건) 중 76건(60.8%)이 종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49건(39.2%)이다. 종결된 사건은 파산 및 면책신청이 73건, 개인회생신청은 3건 그리고 취하된 사건(파산·면책)이 1건으로 승소율은 100%였다.

5.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 대부분은 생활비 부족과 사업의 경영 파탄을 이유로 채무를 지기 시작하였고, 매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본인의 소득보다 커져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수입의 감소, 실직, 또는 폐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명의로 급여통장을 만들지 못하여 취직을 할 수 없거나, 노력 또는 정신병 등의 지병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3자의 실수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큰 피해를 입었거나 코로나19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었다. 이처럼 여러 사정으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는 삶의 의지를 잃고 장기간 무직 상태로 국민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거나 자활근로 또는 간헐적 일용직근로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극심한 채무독촉에서 벗어나는 것과 압류를 당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본인명의로 통장이었다.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가 다시 사회

에 복귀하여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돕는 일은 가능한 적기에 신속히 이루어질수록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채무자의 근로의지와 능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행히도 파산 및 면책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간소화되어 채무자가 신청을 준비하면서 체감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경감되었고, 면책결정까지의 소요기간도 단축되어 채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줄어들었다.

2021년 상담소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소송구조를 한 사건들 중 현재까지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4~5개월이 소요되었다.⁷⁾ 종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단축된 셈으로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상담소를 통한 소송구조사건은 다른 기관에 비해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2~3개월가량 짧았다. 이는 법원과 본소의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패스트트랙 업무협약⁸⁾에 의해 관할법원에서 본 소의 소송구조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기인한다.

이처럼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나 피치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신용회복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이혼과 재산분할을 하여 재산을 처분한 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려는 사람도 드물게나마 상담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기파산 등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하고 면책은 불가능하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이다.

전규선 · 조은경 상담위원

7) 2021년 파산면책 소요기간

- ① 최단기간: 3개월(남성, 50대, 대출, 월수입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액 102,415,140원, 생활비부족과 타인보증으로 채무발생)
- ② 최장기간: 8개월(남성, 50대, 중졸, 월수입 67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액 51,213,077원, 생활비부족과 사기파해로 채무발생)

8)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패스트트랙 업무 협약 체결



부부가 함께 상담하며 비폭력대화법 익혀
꿈꾸던 가정을 향해 갈 수 있게 돼

2020버2**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8회

상담기간

2020. 5. 6. ~ 2020. 11. 25.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46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성년인 1남 2녀가 있다. 자녀들은 결혼하거나 독립하였고 부부만 살고 있다. 부부는 함께 운영하던 가게가 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사건 당일 행위자는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가게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가게의 커피포트, 온풍기, 화분 등을 손괴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도록 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가게 운영 때문에 상담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상담과 관련한 의견을 확인하고 행위자 상담에 반영하였다.

사건 이후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우리가 나이도 많은데 언제 갈지 모른

다. 서로 화내지 말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자”고 손편지를 써서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도 행위자의 뜻에 공감하였다. 그러한 사전 노력 덕분인지 초상담시 확인 결과 행위자는 절주를 하고 있고, 부부간 의견이 다를 경우 부부 모두 감정을 자제하고 싸증을 내지 않는 등 변화가 있었다. 또한 행위자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부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상담 중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담 기간 대면상담이 중지되었다가 10월에 대면상담을 재개하였다.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생활을 점검한 결과, 행위자가 이전보다 기세가 누그러지고 소득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변화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무시나 욕박지르기는 여전하다고 하며 개선되기를 바랐다. 한편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친절하지 않고 애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점을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였으나 상담을 통하여 그 점을 인식하고 노력을 다짐하여 이를 실천과제로 부과하였다. 또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비폭력대화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상담 종결시 점검 결과, 행위자는 부부간 대화가 중요하며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부부싸움을 하면 갈등상황으로 종료되었는데 이제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된 점과 부부 모두 대화를 조심하게 된 점을 변화로 꼽았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③

●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Q 문 7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 인지요?

A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¹⁾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당사자 간의 협이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3항). 다만 위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습니다(동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외국 거주자의 협의이혼 방법

Q 문 8 | 미국에 사는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혼을 하려면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요?

A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1항).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규칙 제75조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이를 당사자들이 받아 당사자들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1)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첨부할 서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부, 모별로 각1통),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1통),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2통).



Q 제 동생은 중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당시 생후 3개월인 조카의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동생의 전 배우자는 중국으로 가버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동생은 조카를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조카를 보육원으로 보내려는 동생을 저지하고 저와 아내는 조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후 3개월이던 조카는 현재 10살이 되었고, 동생은 조카가 10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조카의 위탁부모로 지정되어 계속 조카를 친자처럼 양육하고 있으며, 사실 조카는 저희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법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카가 성장할수록 학교, 병원, 행정 업무 등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권자인 동생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조카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카의 친권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A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24조 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

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

여기서 친권의 남용이란 신체적·정신적 학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 자녀의 취학 거부,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으로 유도하는 것,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조부모 등 제3자와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것을 이릅니다. 또한, 자녀에게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지 않는 등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자녀를 방임하는 것도 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동생에 대하여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에 따라 정해진 단독친권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친권자가 아니었던 부 또는 모, 자녀, 자녀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가 아니었던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1호, 제909조의2 제1항, 제3항).

따라서 동생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의 친권이 상실된 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단독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 등의 친권자 지정 청구 여부를 기다린 다음 귀하를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귀하를 임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927조의2 제1항, 민법 제909조의2 제5항).

유혜경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현장실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신는다.

허 지 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궁지에 몰린 사람을 돕기는 어렵습니다. 돕는 입장인 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도움을 받아본 적이 더 많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성실히 도움을 받아야만 도운 결과도 좋아지고 의미도 보람도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도움이 의미 없어지고 관계도 틀어진 경험을 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고 공익법무 또한 가능한 선택지로 항상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있다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익법무에 힘써서 공동체에 보답하는 삶은 힘들더라도 보람 있고 멋진 삶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 관계를 그르친 적이 많은 내가 공익법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더라도 내게 너무 힘이 들지는 않을까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베풀 수 있는 시점이 된 뒤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거나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익법무는 ‘베푸는’ 일만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인 것은 사실이고, 분명 어려운 시기에 있어본 경험을 갖고 공익법무를 맡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다양한 시점에서 사안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고, 내가 그 산들을 넘을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여러 기록들을 열람하고, 여러 내담자들의 고민을 듣고, 법적 쟁점을 판단하여, 적절히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을 좋은 지도에 따라 실습할 수 있었고, 실무수습의 가장 큰 목적인 법률지식을 현실에 접목, 활용하는 연습을 무척 많이, 그

리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소감을 남기고도 싶지만, 객관적으로는 덜 중요하더라도 저는 다른 소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실무수습을 하면서 앞에서 말한 그러한 산들을 혼자서 넘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실감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실무수습을 하면서 앞에서 말한 고민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했고, 정말 도움이 될 조언을 많이 들었고, 그 조언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지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고민이 남아 있고 두려움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혼자서만 끌어안지 말고, 먼저 고민하고 실천한 사람들에 대해 질문하고, 보고 배우면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찾아온 것도 아닌데, 실무수습을 마치는 지금은 마치 상담을 받고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상담이 그저 상담이지만 않고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박 신 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확고히 하게 된 것은 학부 1학년 2학기에 인권법 과목을 수강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회의 규범과 윤리를 정리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법을, 인간이 갖는 존엄과 가치의 표명이자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익법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개인의 특수한 조건과 그 조건 속에서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을 통한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는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소장과 준비서면 등 직접 작성해 볼 기회가 없었던 법률 문서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양식에 맞춰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로부터 예측되는 법적 쟁점을 직접 고민해 보아야 했습니다. 일반화된 법 조문의 내용을 개인이 실제로 맞닥뜨린 특수한 갈등 상황에 직접 적용해보고 그와 관련한 판례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 강의를 들으며 익혀왔던 지식이 구체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쟁점을 미리 제시해주셨던 소장 과제와 달리, 준비서면의 경우 예상되는 항변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고민해야 했기 때문에 작성하기는 더 어려웠지만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그만큼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담 참관을 통해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 서류들을 검토하면서도 다양한 사연을 접할 수 있었지만, 상담에 직접 참관하여 그 당사자가 말로

전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훨씬 더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특수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 법이 보편화된 언어로 규율하고 있는 쟁점들을 도출해봄으로써, 역으로 교재와 문제집에 적힌 사례 및 판례들의 행간에 녹아 있는 삶의 어려움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업 이외의 활동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한 해를 보내고 나니, 처음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을 때의 동기부여나 열정은 줄어들고 회의감이나 나태함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시험 합격을 위한 것으로 축소되었던 법 공부에 대해 새로운 동기와 목표의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경험을 연료로 삼아 앞으로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간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2년 2월 상담통계

총 건수 4,758

법률상담 (4,137)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686	3,379	71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13	45	63

• 인터넷 정보 이용 50,330 건

2022년 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758건이었다.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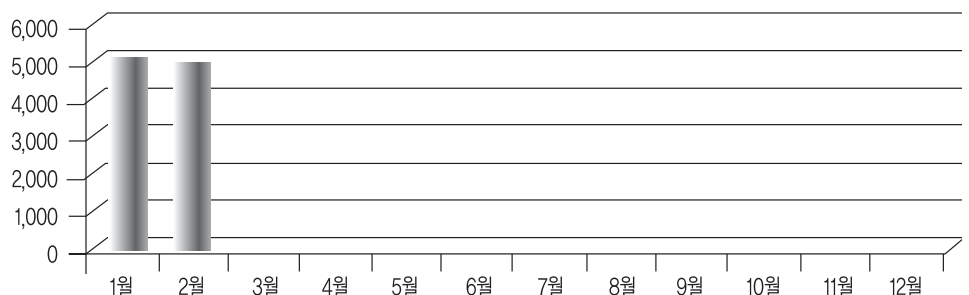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137건(86.9%), 화해조정 513건(10.8%), 소장 등 서류작성 45건(1.0%), 소송구조 63건(1.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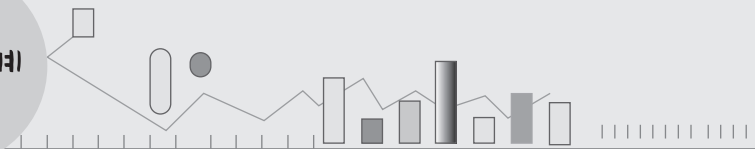
법률상담 4,137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혼해소(0.9%→1.1%), 위자료·재산분할(9.3%→9.8%), 친권·양육권(5.8%→6.1%), 면접교섭권(3.2%→3.7%), 친생자존부(2.6%→3.2%), 혼인무효·취소(0.4%→0.7%), 부양(1.6%→2.1%),

친양자(0.7%→0.8%), 가사기타(7.7%→11.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3%→0.4%), 민사기타(0.6%→0.7%),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0.0%→0.1%), 형사기타(0.3%→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137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686건(16.6%), 전화상담 3,379건(81.7%), 인터넷상담 71건(1.7%), 서신상담 1건(0.0%)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2022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

본소의 2022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4일 열렸다.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 김의재, 장명수, 곽배희, 조대연, 김명순, 김병후 이사, 최문원 감사가 참석하였으며 차명희 이사장의 개회, 전회 회의록 요약 보고, 감사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2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신임 이사로 박영립 변호사,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오는 9월 2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한미영·최문원 감사에 대해 유임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신임 이사와 감사는 오는 9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 밖에 기타 안건으로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2월 8일에는 한미영·최문원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담소 내부감사가 진행되었다. (관련사진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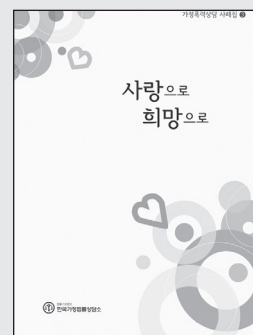
본소, 세 번째 가정폭력상담 사례집 ‘사랑으로, 희망으로’ 발간

본소는 세 번째 가정폭력상담 사례집 ‘사랑으로 희망으로’를 발간하였다.

본소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한 전국 각 법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위자와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습관을 교정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렇게 1998년부터 행위자 수탁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행위자들의 성행교정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상담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 사례집은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세 번째로 발간한 본 사례집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변화하는 가정폭력의 양상에 따라 13가지 특징을 추출하여 정리하였으므로, 현장의 상담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소 한수자 고문, 운영후원금 기탁

상담위원, 상담 자원봉사 등으로 오랜 기간 상담소와 함께하고 있는 한수자 고문이 상담소 법률구조 사업을 위한 운영후원금으로 2천만 원을 기탁 하였다.

상반기 자원봉사학생 교육 실시

본소 교육부는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2022년 상반기 자원봉사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준비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서는 상담소 소개 영상 시청 및 가족법,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앞으로 정해진 시간에 상담소에서 자원봉사 및 법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게 된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비대면으로 열려

지난 2월 24일 본소 교육 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행복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김병후 원장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성과 주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가족·지인과의 긍정적인 교류, 자신의 건강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모두 40명이 참석하였고 이 강의는 매월 넷째 목요일에 이루어지며 다음 강의는 3월 24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 - 동국대 및 이화여대

2021.12.29 - 2022. 2. 28

김진호, 장은정, 박정원, 이채리, 이승영, 김령경, 김유정, 정채연, 박유빈, 이하은

2.9. 법률구조체험 - 이레가정폭력상담원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2.21. 자원봉사학생대상 - 가족법교육I

- 박상진 상담위원

2.22. 자원봉사학생대상 - 가족법교육II

- 조은경 상담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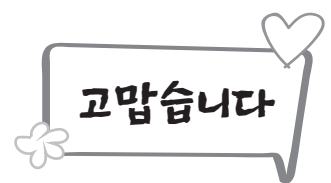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회의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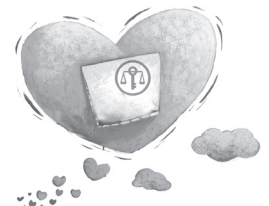
후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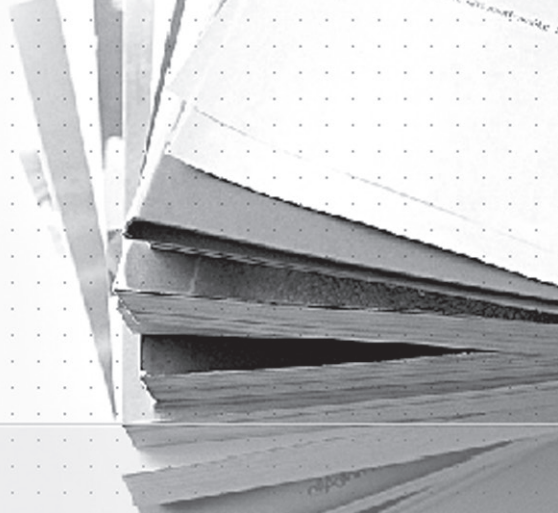
· 일반회원이 되신 분

김진곤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최정란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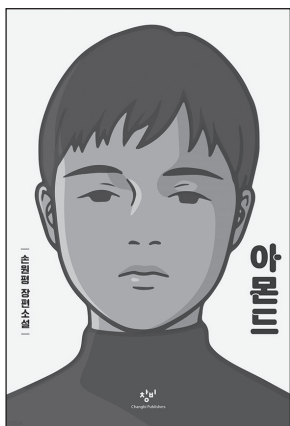




아몬드

손원평 장편소설

창비, 2021



친구들과 나이 드는 것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야기한다. 군인 아저씨들은 벌써 진즉에 ‘고생하는 아들들’이 되었고, 핸드크림과 립밤이 필수품이 되었으며 등등 그리고 영화는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가 최고라는 것, 물론 나는 연쇄살인범 시리즈도 좋아한다. 아직 평생 애정해 온 장르물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정적으로 힘들어도 켄 로치 감독이나 다르덴 형제의 영화는 괜찮다. 시놉시스만 보고 아직 보지 못한 영화,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은 영화는 ‘안개 속의 풍경’이나 ‘케빈에 대하여’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같은 작품이다. 아이들이 고통받는 세상, 인생의 부조리함이라는 뒤편에 걸린 아이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 자신이 늙어 가는 부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윤재나 곤이의 상처에 집중하는 동시에 아이의 문제를 알게 된 엄마, 그 엄마의 엄마, 아이를 잃어버린 후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이제 목숨까지 놓아야 하는 엄마에게 깊이 공감했다.

손원평의 소설 『아몬드』의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소통과 사회생활에 문제를 겪는다는 뜻이다. 친구가 다치면 괜찮은가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재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이상한 아이’로 낙인이 찍히고 엄마는 아이가 ‘평범하게’ 보이도록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윤재도 따라서 노력한다. 심지어 윤재의 문제가 머릿속 편도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와 비슷한 아몬드를 많이 먹고 먹는 노력, 평범하기 위한 노력,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기 위한 노력,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호의를 보이면 고맙다고

말하는 식의 ‘주입식’ 감정 교육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사랑을 담아 ‘괴물’이라 부르고 아이가 가진 그대로를 보여주는 할머니 있었기에 그럭저럭 괜찮았다.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으로 홀로 남겨지기 전까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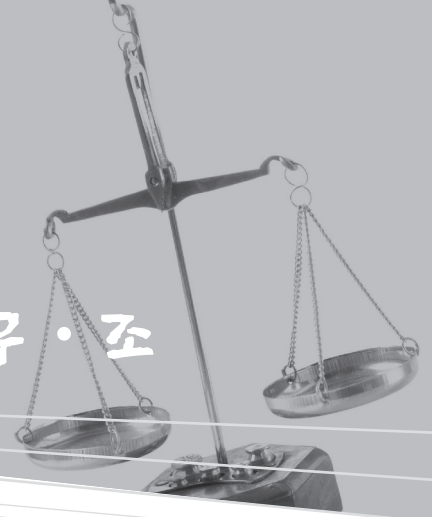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때에 윤재 곁에 새로운 만남이 다가온다. 윤재를 이해하면서 돕고자 하는 ‘심박사’, 윤재와 안타까운 운명으로 얽히게 되는 어두운 상처를 간직한 ‘곤이’, 맑고 순수한 감성을 지닌 ‘도라’가 그들이다.

윤재와 곤이가 접점을 찾아가는 장면들은 안타깝기도 하고 긴장감도 있고, 결말이 불만스럽다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나는 좋았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옳다. 그리고 세상이 윤재나 곤이 같은 아이들에게 더 관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은이 손원평은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첫 아이를 낳은 후 이 두 아이를 생각해 냈고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너의 의미」 등 다수의 단편영화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아몬드』는 제10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으로 작가의 첫 장편소설이며, 또한 장편소설 『서른의 반격』으로 제5회 제주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사족이라면 『헝거게임』과 비교하며 규정하고 있는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의 탄생’이라는 이 소설에 대한 평가는 “한국형 영어덜트”라는 의미 자체를 잘 모르겠다. 굳이 이런 규정이 필요했는지도 그렇다. 느낌표까지 붙여 책 표지 뒤에 큼지막하게 광고할 만큼 말이다.

이숙현 편집부장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1-1-467

담당 : 최국신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30대)와 채무자(남, 40대)는 2009년 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15년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고, 채무자는 이혼 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 조서가 작성되었다.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2015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80개월간 월 100만 원(자녀 1인당 5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양육 책임을 회피한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21-1-324

담당 : 배향미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08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14년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하여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 조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구두로 5년간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 5년이 지났으나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살기를 원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계속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상대방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본인들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혼자 부담하였으며 양육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제사정을 이유로 이혼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였고, 사건본인들을 만나는 것도 계속 미루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와 달리 급여가 낮은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 12. 27.)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3호협0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4. 0.

00.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1. 12.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1. 1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 18:00까지(1박 2일)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3박 4일

3)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나. 방법: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청구인과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청구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라.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 청구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163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과

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아갔고, 진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신청인은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하였으나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고, 상세불명의 전신두드러기까지 앓게 되었다. 이에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신용카드와 대출 등을 이용하였다. 이후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 다시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일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여러 사정이 겹쳐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3,6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2.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332

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2000년경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친동생으로부터 대출보증 부탁을 받았다. 친동생은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되면 신청인이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유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오랜 꿈이었던 박물관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잘 되지 않아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결국 4년 만에 폐업을 하였다. 이후 박물관은 경매로 처분되어 배당이 이루어졌고, 잔존채무가 많이 남아 있던 신청인과 친동생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더 이상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 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2.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4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3월 14일, 3월 28일, 4월 11일, 4월 25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3월 24일	너의 의미
4월 28일	분노는 과학이다.
5월 26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인 자율성
6월 23일	관계에서의 상처
7월 28일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인가?
8월 25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2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7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4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3월 10일	분노의 관리1, 잘 화내는 법이 있긴 한가요	이서원 소장 (한국 분노관리 연구소)
4월 14일	분노의 관리2, 화내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5월 12일	분노의 이익, 화를 잘 내면 원하는 걸 얻어요	
6월 9일	분노의 결과, 화내지 않기 위해 화를 내는 거예요	
7월 14일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월 8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10월 13일	돌아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11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8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가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5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2-3601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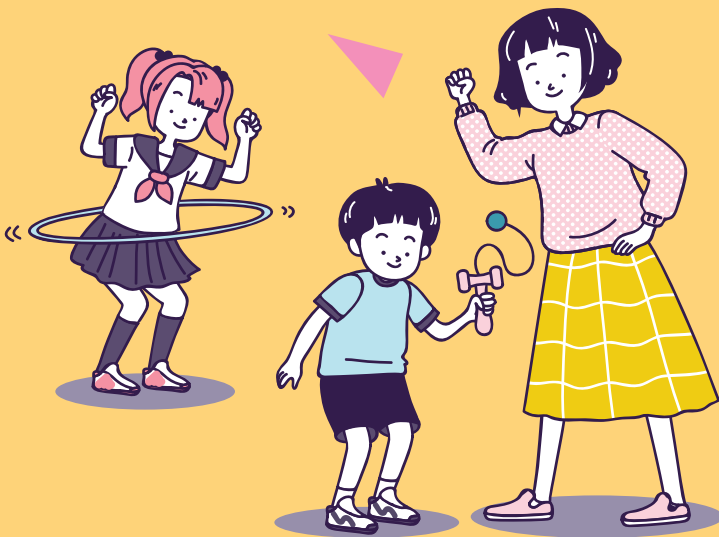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시 ▶

2022년 5월 / 7월 / 9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내가 실천하는 청렴이
모두가 신뢰하는 사회가 된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 <http://lawhome.or.kr/m>